

農家 家計의 消費構造 分析 (1960~1968)

—所得水準이 消費構造에 미치는 影響分析을 中心으로—

An Analysis on The Consumption Pattern of Korean
Farm Households (1960~1968)

—The Influence of Income Level on The Consumption Pattern—

目 次

- I 諸 論
- II 資料 및 方法
- III 結果 및 考察
 - 1. 物價變動과 消費構造
 - 2. 農家可處分所得과 消費構造
 - 3. 서울 全家口 消費構造와의 비교
 - 4. 農家の 飲食物 消費構造
- IV 結 論
- 參考文獻
- Abstract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助教 崔 銀 淑

Assistant Eun Sook, Choi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I. 緒 論

1960年代는 國民經濟에 많은 發展을 보았으며 그에 따라 國民生活에 커다란 變化를 가져왔다. 두 차례의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의 遂行으로 우리의 所得은 크게 向上되고 이에 따라 國民의 消費生活은 改善되고 있다. 低所得層에 있어서의 所得이 增加되었을 때의 效果는 食生活의 改善 또는 變化를 隨伴하게 되겠는데 그 程度는 所得增加額 家計用品의 價格, 食事型, 教育程度 國民의 嗜好 等々の 理由에서 다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1960年代의 우리 國民의 所得增加는 物價變動과 더불어 消費構造上에 어떤 變化를 가져오는가를 主로 農家の 食生活을 中心으로 究明해 보았다. 여기서 얻어진 結果는 앞으로의 所得增大에 隨伴되어 變化될 消費構造를 豫測케 할 뿐만 아니라 食糧需要, 國民의 營養問題 等を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II. 資料 및 方法

本 論文에서는 다음의 既存 統計資料를 使用하였다.

1) 韓國銀行；經濟統計年報 1962, 「農家家計費(戶當平均)」 「農家家計收支總括 1960~1961」

2) 農林部；農林統計年報 1968, 經濟企劃院；韓國統計年鑑 1969, 農協中央會；農業年鑑 1969, 韓國銀行；經濟統計年報 1967 「農家家計費(戶當平均) 1962—1968」

3) 經濟企劃院；도시가계보고서 1969—「신구가계수지링크결과표 1960~1962」, 「都市別全家口月平均家計收支 1963~1968」

4) 韓國經濟人協會；韓國經濟年鑑 1968, 1969 「서울 消費者物價指數 1960~1968」

5) 經濟企劃院；韓國統計年鑑 1969 「農家構入價格指數 1960~1968」

以上の 資料로 1960 年부터 1968 年까지의 9 年間에 걸쳐 農家家計費와 可處分所得을 全國平均과 5階層의 耕地 規模別로 引用 또는 算出하였고, 消費構造를 把握하기 爲하여 百分比를 내어 使用하였으며, 物價變動 및 所得增加가 消費生活에 미친 影響을 時系列的 分析으로 서울 全家口와 農家를 比較하여 考察하였고 또한 農家耕地 規模別로 比較 考察하였다. 이를 다시 家計費目中에서 가장 比重이 큰 飲食物費에 對한 內容의 變化를 把握하기 爲해 1964 年부터 1968 年까지의 5 年間 資料를 같은 方法으로 分析 考察하였다. 여기 使用한 金額의 (9 년간 및 5 년간) 平均値는 1965 年을 基準으로한 不變價格의 平均値이며 平均 增加率은 幾何平均을 낸 것이다.

III. 結果 및 考察

1. 物價變動과 消費構造

1960 年 부터 1968 年 까지 9 년간의 全國農家 家計費支出의 趨移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名目上으로는 매년 增加하였다. 1968 年の 농가가계지출은 143,104 원으로 1960 年の 45,500 원에 비하여 212.3%가 增加하여 약 3 배를 示顯하고 年평균 15.4%의 增加率이 되고 있다.

그러나 農家家計用品 構入價格指數 역시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昂騰하여 1960 年에 비하여 1968 年の 농가구입가격 指數는 173.4% 上昇하였고 年평균 13.4% 增加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농가가계 지출은 이 기간 동안 38.9% 增加하였고 年평균 2.0%의 증가를 가져온 셈이므로 실질적으로 농가의 消費水準이 크게 向上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다.

農家 家計의 消費構造分析

연도별 비목별로 본 가계비의 상대적 중요성

전국농가(호당평균) 1960~1968

<표-1>

연도별	가 계 비 (100)						
	총액	대전년비	음식물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원	%	%	%	%	%	%
1960	45,500	—	58.8	3.6	12.2	9.5	15.9
1961	54,510	19.8	59.7	4.4	10.5	9.8	15.6
1962	55,739	2.3	55.9	3.4	9.8	7.8	23.1
1963	77,464	39.0	60.3	3.4	9.2	6.5	20.6
1964	101,118	30.5	59.3	3.2	7.4	7.0	23.1
1965	100,492	-0.6	53.1	3.8	7.8	8.0	27.3
1966	109,878	9.3	50.2	4.0	8.2	8.7	28.9
1967	127,667	16.2	49.0	4.0	8.0	9.0	30.0
1968	143,104	12.1	47.4	4.9	8.1	9.0	30.6

자료: 1960~61;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62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68
1962~68;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1968 농림부; 농가경제조사 1968

<표-2>

가계용품 농가구입가격 지수 및 증감률

1965=100

연도별	총지수	대전년비	음식품		주거		광열		피복 및 섬유		잡품	
			평균	대전년비 %	평균	대전년비 %	평균	대전년비 %	평균	대전년비 %	평균	대전년비 %
가중치	631.36		246.24		51.20		18.06		151.68		164.18	
1960	53.3	—	45.0	—	47.6	—	66.2	—	56.3	—	63.4	—
1961	56.2	5.4	50.7	12.7	51.3	7.8	70.4	6.3	55.6	-1.2	65.0	2.5
1962	61.4	9.3	56.2	10.8	56.9	10.9	69.2	-1.7	53.4	-4.0	77.2	18.8
1963	69.6	13.4	74.6	32.7	64.0	12.5	72.4	4.6	62.2	16.5	70.6	-8.5
1964	89.8	29.0	97.7	31.0	83.1	29.8	86.7	19.8	87.6	40.8	82.6	17.0
1965	100.0	11.4	100.0	2.4	100.0	20.3	100.0	15.3	100.0	14.2	100.0	21.1
1966	112.1	12.1	104.0	4.0	116.2	16.2	120.5	20.5	116.5	16.5	118.0	18.0
1967	126.4	12.8	120.1	15.5	130.1	12.0	142.6	18.3	129.7	11.3	129.7	9.9
1968	145.7	15.3	143.9	19.8	142.3	9.4	149.7	5.0	138.0	6.4	156.1	20.4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1969(농협중앙회)
가계용품 101품목, 전국 137개 지역에서 조사
가중산술 평균법에 의해 계산한 것임.

農家家計支出의 費目別 構成比를 (표 1)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9년간 계속 首位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飲食物費로서 전체 가계비중 평균 약 55%라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농가의 Engel계수는 依然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다음이 雜費로서 평균 약 23.9%를 차지하며 光熱費가 약 9.0%, 被服費가 약 8.0%, 마지막으로 住居費가 약 4.0%로 最低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다시 연도별로 관찰해 보면 飲食物費의 비중은 1962년을 제외하고는 1960년 부터 1963년까지 增加趨勢를 보였다가 1964년 부터는 계속 遞減하고 있으나 계속 전체 가계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다가 1967년에 비로소 이 水準을 下

廻하여 1968년에 47.4%로서 많이 好傳되었다. 1963년의 英鎊계수 60.3%란 엄청난 비중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식품가격지수가 32.7%의 高率로 昂騰한데 基因한 것으로 思料되며 1964년에도 同價格指數가 31.0% 상승한데 영향을 받아 50.9%의 높은 英鎊계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1965년의 英鎊계수가 53.1로 前年에 비해 대폭 減少한 것도 同年度의 음식품가격지수가 9년중 가장 僅小值인 2.4%의 증가를 보인 것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겠다. 所得의 增大로 인한 英鎊계수의 減縮이 바람직한 現狀이었으나 여기서는 價格變動의 영향이 큰 것으로 思料된다. 1967년 이후 음식물비의 비중이 遞減하는 현상은 잡비의 증대를 隨伴한 것과 同年의 음식품가격지수가 높은 昂騰을 보인 것으로 미루어 농가생활수준의 향상을 示唆해 주는 듯하다. 다음에 住居費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으며 그 差異는 매우 僅小하여 대체로 일정한 비중을 占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比重이 낮은(3.2%) 1964년에는 주거품구입가격지수가 29.8%라는 最高의 昂騰을 나타낸 사실은 主目할 만하다. 한편 光熱費의 비중은 1964년까지는 계속 감소하다가 그후 약간 증가하여 비교적 일정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광열품 구입가격지수의 상승과는 별로 관계없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被服費는 1963년까지는 遞減하다가 다시 1964년 부터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 비중이 낮았던 시기는 1963년의 6.5%로 나타나 있고 이 시기에는 피복 및 섬유품 가격지수의 對前年 昂騰율이 16.5%라는 것과 음식물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點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시기는 1961년의 9.8%로 同年에 同購入 價格指數는 1.2%의 下落을 示顯하고 있다. 1964년의 同購入價格指數는 40.8%의 대폭 上昇을 보였으나 피복비의 구성비는 전년보다 0.5% 증가했을 뿐이다. 한편 1962년의 農家購入價格指數가 4.0% 下落한데 대하여 피복비 구성비는 전년보다 2.0% 낮은 7.8%를 나타내고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피복비의 比重은 대체로 物價에 反比例하는 傾向을 보이며 비교적 需要의 彈力性이 높다는 것을 暗示해 주고 있다. 끝으로 농가의 文化生活面과의 接觸水準을 把握하는데 重要한 雜費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음식물비와는 대조적으로 1961년과 1963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들 減退하였던 年度에는 잡품 및 서비스의 농가 구입가격지수가 低率의 昂騰 또는 下落을 보임으로서 價物의 低落이 한 原因이 되고 있음을 示唆해 준다. 또한 主目할 만한 것은 이들 兩年度에는 음식물비의 비중은 증대되어서 음식물비와 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相對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點이다.

2. 農家可處分所得과 消費構造

1960년~1968년의 9년간 농가 가계비지출의 추이는 농가 가처분소득의 增減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리라 思料된다.

농가 가처분소득은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5년의 異例의인 11.4%의 減退

農家 家計의 消費構造 分析

<표-3>

연도별 가계 수지 1960~1968

전국 농가(호당평균) 단위: %

연 도 별	농가 가처분 소득(농가소득~조세공과, 부채이자)				
	총 액	대 전 년 비	가 계 지 출	기 타 지 출	농가경제잉여
	원	%	%	%	%
1960	52,040	—	87.4	—	12.6
1961	63,530	22.1	86.0	—	14.0
1962	65,905	3.7	84.6	—	15.4
1963	90,271	37.0	85.8	1.9	12.3
1964	121,314	34.4	83.4	1.9	14.7
1965	107,519	-11.4	93.5	2.1	4.4
1966	124,668	15.9	88.1	1.4	10.5
1967	144,645	16.0	88.3	1.9	9.8
1968	173,561	20.0	82.5	1.4	16.1

자료: 1960~61: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62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68
 1962~68: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1968 농협; 농업연감 1969

현상을 除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명목상으로는 9년간 평균 16.3%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농가 구입가격지수의 평균 증가율 13.4%를 勘案하면 실질적인 所得은 불과 연평균 2.9%의 증가율이 될 뿐이다. 여기서 실질적인 소득 증가율은 가계지출 증가율(2.0%)을 약간 上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년중 최고 증가율을 보인 시기는 1963년의 37.0%로서 가계지출의 최고 증가 시기와 일치하여 1965년의 가계지출이 전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던 것도 가처분소득의 감퇴에 그 직접적 원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8년의 농가가처분소득이 173,561 원으로 1960년(52,040 원)에 비하여 명목상으로 231.5% 증가하므로써 약 배 이상이 된 것도 가계 지출의 경향과 同一하다. (표 1)과 (표 2)를 比較하면 농가가계 지출의 증감은 가처분소득의 증감과 比例하여 나타나고 있음이 더욱 明白해 진다. 또한 가계비지출이 가처분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平均消費性向이 대체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 事實을 立證해 주는 것이다. 1965년에 93.5%의 높은 消費性向을 보인 것은 가처분소득의 감축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농가의 가계지출이 일반적으로 最低生活 維持를 위한 정도에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 같다. 1965년의 가처분소득의 감퇴현상은 同年에 농가소득의 기분이 되는 農業所得이 異例的인 穀價의 低落으로 인하여 감축된데 主要原因이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1968년의 소비 성향은 82.5%로 9년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에 농가 경제잉여는 가장 높은 16.1%를 示顯하므로써 농가가계가 윤택해 지고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다시 費目別 構成比와 可處分所得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飮食物費에 있어서는 1960년 부터 1963년 까지는 소득의 증감과 營業계수의 증감이 比例적으로 나타났고 1964년 이후에는 1965년을 제외하고 소득의 계속적 증가에 따라 營業계수는 遞減하고 있다. 1960~1963의 現狀을 분석해 보면 1961년엔 22.1%의 명목상 소득증대가

있었고 실질소득도 16.7%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엔겔계수는 59.7%로 증대되었으며 1962년엔 실질소득이 5.6% 감소하였고 음식품 구입가격지수는 10.8%의 앙등율을 보였으나 엔겔계수는 55.9%로 下落하였다. 또한 1963년엔 9년중 최고의 소득증대율(37.0%)을 보였고 실질소득도 23.6%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엔겔계수는 60.3으로 가장 높았다. 이 시기엔 음식품가격의 앙등율(32.0%)도 가장 높아서 크게 작용했으리라 생각되나 이상의 현상은 「음식물비의 비중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빈곤상태에선 어느 수준까지는 소득증가에 따라 엔겔계수도 증가 한다.」는 엔겔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농가가계의 빈곤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思料된다. 1965년의 소득감소에도 엔겔계수가 체감한 것은 음식품가격이 저렴한데 영향을 받은것 같다. 다음에 住居費를 보면 1964년까지는 減少하는 경향이 있고 1965년 부터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나 소득의 증감과는 뚜렷한 關係를 보이지 않으며 대체로 일정한 편이다. 光熱費의 構成比 역시 1964년까지는 漸減하였고 1965년부터 약간 증가하였으나 대체로 소득증가에 따라 체감 내지 일정한 비율을 維持하는 경향이 보인다. 被服費가 차지하는 比率는 음식물 비와는 반대로 소득의 증감에 反比例 하는 경향이 며 1963년에 소득의 증가에도 감소를 나타낸 것은 가장 필수적인 음식물비의 비중이 높아 진데 압축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雜費의 構成比는 가장 소득의 증감에 예민하게 反應하여 매년 증대하는 소득에 따라 漸增하고 있으며 1961년과 1963년의 逆현상은 필수적인 음식물비의 비중에 영향받은 것으로 思料된다.

農家可處分所得과 消費構造의 關係를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농가의 소득수준을 규정짓는 耕地規模에 따라 (I) 0.5정보미만 (II) 0.5~1.0정보 (III) 1.0~1.5정보 (IV) 1.5~2.0정보 (V) 2.0정보이상의 5계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편의상 5계층을 ()안의 로마숫자로 표시하기로 함) 경지 규모별 가계지출은 경지규모의 대소에 따라 比例的임을 (표 4)에서 볼 수 있다.

<표-4> 경지규모별 비목별로 본 가계비의 상대적 중요성 1960~1968 평균치

경 지 규 모 별	가 계 비(A) (100)					
	총 액(원)	음식물비	주 거 비	광 열 비	피 복 비	잡 비
I 0.5정보미만	70,864	59.0%	3.9%	10.3%	7.9%	18.9%
II 0.5~1.0	88,938	57.2	3.8	9.4	8.0	21.6
III 1.0~1.5	117,089	54.0	3.9	8.2	8.8	25.1
IV 1.5~2.0	142,053	51.1	4.0	7.8	8.9	28.2
V 2.0정보이상	178,198	48.2	3.9	7.1	8.9	31.9

※ 금액은 1965년을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의 9년간 평균치

I계층의 70,864 원에 비하여 V계층은 178,198 원으로 약 2.5 배에 달하고 있다. 농가가

農家 家計의 消費構造 分析

처분소득 역시 (표 5)에서 보면 계층간의 격차는 심하여 I계층에 비하여 V계층은 약 3배에 달하고 그 중 평균소비성향은 경지규모가 클수록 낮아지며 이에 반하여 경제잉여의 비중은 漸增되는 현상이 뚜렷하여 V계층은 I계층의 약 5배가 되고 있다. 각 계층의 평균

<표-5> 농가 경지규모별 가계수지 1960~1968 평균치

경 지 규 모 별	농가 가처분 소득 (B) (100)			
	총 액	가 계 지 출	기 타 지 출	농가경제 잉여 및 손실
정보	원	(A/B)%	%	%
I 0.5미만	73,761	95.1	0.7	4.2
II 0.5~1.0	100,081	89.0	1.2	9.8
III 1.0~1.5	136,847	85.7	1.5	12.8
IV 1.5~2.0	175,303	81.5	1.2	17.3
V 2.0이상	228,915	78.4	1.2	20.4

※ 금액은 1965년을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임.

소비성향을 연도별로 관찰하면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時系列的으로는 뚜렷한 경향이 없으나 각 계층간에는 顯著한 隔差를 보인다. 즉 零細農일 수록 소비성향이 커서 소득의 대부분이 가계비로 지출되어 저축의 여지가 없으며 大農으로 갈수록 여유를 보이고 있음이

<표-6> 농가 경지 규모별 연도별 평균 소비성향 (가계비/가처분소득) 단위 : %

연도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평균
경지규모별										
I 0.5 정보미만	90.4	88.6	95.2	97.4	95.3	103.5	98.6	94.1	93.0	95.1
II 0.5~1.0	87.1	85.9	87.7	91.1	84.6	97.4	89.9	89.7	87.9	89.0
III 1.0~1.5	86.3	83.4	83.7	83.9	85.2	91.3	88.1	90.0	79.3	85.7
IV 1.5~2.0	84.3	83.2	85.3	77.3	73.1	86.3	86.4	81.1	76.4	81.5
V 2.0 정보이상	86.1	85.9	77.8	70.0	70.8	83.7	75.8	82.1	73.7	78.4
전 국	87.4	86.0	84.6	85.8	83.4	93.5	88.1	88.3	82.5	85.9

9년간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다시 경지규모별로 전체 가계비에 대한 비목별 구성비를 (표 4)에서 살펴보면 계층간에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지규모가 클수록 제 2차적 가계 지출인 잡비의 비중이 높아져서 I계층의 18.9%에 비하여 V계층은 31.9%로 약 2배에 달하고 있어 문화생활수준의 경지규모별 變異를 알려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음식물비의 비중은 경지규모가 클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와 같이 경지규모가 커질수록 엔겔계수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각 계층이 갖는 소비구조에 格別한 영향을 주고 있음은 잡비의 구성비가 零細農일수록 낮아지고 있는 逆相關關係에 基因하는 것이다. 주거비의 구성비는 경지규모가 커질수록 체감하고 이와는 반대로 피복비는 영세농으로 갈수록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開差는 매우 僅小함을 알 수 있다. 以上の 結果로 볼 때 음식물비는 전체 가계비중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면서 그 필수성과 긴급성으로 보아 다른 비목의 비중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국농가의 생활수준은 (표 7)의 「엔겔계수와 생활수준」으로 본

<표 7> Engel 係數와 生活水準

經 濟 狀 態	係 數	經 濟 狀 態	係 數
	%		%
上流生活	20	多少 慰安 할수 있는 生活	40
餘裕있는 生活	25	多少健康을 維持할수 있는 生活	45
多少 餘裕있는 生活	30	겨우 生存possible한 生活	50
慰安 할수 있는 生活	35	限界以下の 生活	55

자료 : 李仁喜 著; 家庭經營과 管理

다면 「限界以下の 生活」에서 「겨우 生存possible한 生活」로 향상하고 있으며 1968년에 와서 「多少 健康을 維持할 수 있는 生活」로 接近해 가고 있어서 앞으로의 계속적인 向上이 要求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費目들은 生存을 위한 필수지출에 압축되어 정상적인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서울 全家口 消費構造와의 比較

1960년 부터 1968년 사이의 서울 全家口家計消費支出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1年과 1962年에는 前年에 比하여 縮少되었고 1963년 이후는 계속 증가하여 1967년에는 46.5%의 최고 증가율을 示顯하였고 연평균증가율은 전국농가(15.4%)보다 2.1%가 높은 17.5%가 되고 있다.

<표-8> 연도별 비목별로 본 가계비의 상대적 중요성 서울 전가구(월평균) 1960~1968

연 도 별	가 계 비 (100)						
	총 액	대진년비	식료품비	주 거 비	광 열 비	피 복 비	잡 비
	원	%	%	%	%	%	%
1960	7,200	—	40.4	17.2	5.3	10.7	26.4
1961	6,860	-4.7	43.0	15.4	6.2	9.6	25.8
1962	6,760	-1.5	44.4	19.5	6.2	6.6	23.3
1963	8,120	20.1	50.3	17.1	6.3	5.5	20.8
1964	10,320	27.1	56.3	14.6	5.2	5.0	18.9
1965	11,630	12.7	53.7	15.0	5.4	6.1	19.8
1966	15,830	36.1	45.4	18.9	5.8	7.5	22.4
1967	23,190	46.5	44.4	18.7	5.6	9.4	21.9
1968	26,170	12.9	41.6	17.8	4.9	10.4	25.3

자료 : 경제기획원; 도시가계 보고서 1968

한편 서울 消費者物價指數는 (표 9)에서와 같이 매년 양등하고 있어 9년간 연평균 양등율이 13.3%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가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4.2%인 셈이다. 이는 전국농가의 2.0%에 비하면 2.2%가 높다

1968년의 월평균 서울 가계비는 26,170 원으로 1960년에 비하여 263.5%가 증가하여 약 4 배에 가깝고 이는 서울 소비자물가지수의 177.1% 증가를 감안해도 86.4%의 실질 증가를

農家 家計의 消費構造 分析

<표-9>

서울 소비자 물가지수 및 증감율

1965 : 100

연도별	총지수	대전년비	음식품		주거		광열		피복		잡비	
			평균	대전년비	평균	대전년비	평균	대전년비	평균	대전년비	평균	대전년비
가중치	1,000.0		497.5	%	87.7	%	67.7	%	78.1	%	269.0	%
1960	49.8	—	43.1	—	62.1	—	57.1	—	48.2	—	56.9	—
1961	53.9	8.1	47.1	9.2	61.4	-1.2	67.2	17.6	50.5	4.8	61.6	8.3
1962	57.5	6.7	51.0	8.2	66.5	8.3	71.8	6.8	51.2	1.4	64.9	5.4
1963	68.8	19.6	67.6	32.5	76.5	15.0	72.9	1.5	58.4	14.1	70.5	8.6
1964	68.0	27.9	92.2	36.3	88.8	16.1	82.4	13.3	82.0	40.4	82.9	17.6
1965	100.0	11.3	100.0	8.4	100.0	11.2	100.0	21.4	100.0	12.2	100.0	20.6
1966	112.1	12.1	107.5	7.5	118.5	18.5	116.9	16.9	112.6	12.6	116.8	16.8
1967	124.2	10.7	110.9	3.1	142.0	19.8	138.1	18.1	123.8	9.9	129.9	11.2
1968	138.0	11.1	128.9	16.2	151.0	6.3	154.7	12.0	129.7	4.8	149.0	14.7

자료 : 한국은행 : 한국경제연감, 1968~1969,

잡품 및 Service 1960~64년까지는 1960을 100으로 한 지수로 환산한 수치임)

보여 9년 동안 약 2배에 가까운 실질 가계지출의 증대를 보였다. 이는 농가의 38.9%보다 훨씬 上廻하는 수준이다. 다시 費目別 構成比를 (표 8)에서 연도별로 보면 생활수준의 격차가 되는 음식물비의 비중은 제일 높으나 (표 10)에서 보면 9년간 계속 전국농가 보다 낮

<표-10>

연도별 영겉계수

연도별	영겉계수(%)	
	농가(전국)	서울(진가구)
1960	58.8	40.4
1961	59.7	43.0
1962	55.9	44.4
1963	60.3	50.3
1964	59.3	56.3
1965	53.1	53.7
1966	50.2	45.4
1967	49.0	44.4
1968	47.4	41.6
평균	54.9	46.6

으며 평균 46.6%의 영겉계수를 시현하고 있어서 농가의 경기 규모별 어느 계층도 이 수준에 미달되고 있다. 이로써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얼마나 심하고, 消費構造가 相異한 가를 알려주고 있다. 가장 영겉계수가 높았던 때는 1964년의 56.3%로 이는 同年의 음식물에 대한 서울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에 비해 36.3%란 높은 증가율을 보인데 영향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연도별로 볼 때 1964년 까지 체감한 영겉계수는 61,62 양 연도에는 가계비의 감소로 보아 소득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추측되며 63, 64 양 연도에는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음식품비의 대폭 양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1965년 이후의 漸減현상은 소득증대에 따른 것으로 볼 때 앵겔의 법칙에 부합되고 있다. 다음에 주거비를 보면 9년간 대체로 일정한 편으로서 잡비 다음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농가와 대조적이며 가장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농가의 평균 4.0%에 반해 17.1%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실은 서울과 농가의 주택사정의 樣相이 매우 달라서 농가의 경우는 대부분이 自家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 유지나 가구잡기 등에 지출을 적게하여 표준선(10—15%)이하의 비중을 示顯하는데 反하여 서울은 주택難으로 自家를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 기타 세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家口가 적지 않고 가구잡기 등에도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다. 광열비는 가장 낮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이 농가와 다르며 농가(9.0%)보다 3.3%가 낮고 불규칙하게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피복비의 비중은 평균 7.9%로 농가와 비슷하며 1964년까지는 漸減하다가 1965년 부터 點증하였다. 1964년의 5.2%는 最低率로서 同年의 피복 및 섬유품의 물가지수가 40.4%의 異例의 양등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음식물비와 역상관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써 농가와 같은 현상이다. 끝으로 잡비는 농가와 같이 음식물비 다음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평균 약 22.7%로 농가의 23.9%보다 下廻하고 있으며 역시 음식물비와 역상관관계에 있음이 명백히 나타난다. 지출규모에 있어선 농가 보다 크겠으나 구조면에서 농가 보다 저율로 나타난 것은 주거비의 비중이 증압을 받은 것 같다. 이상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농가는 서울전가구에 비해 높은 앵겔계수와 현격히 낮은 주거비의 비율을 시현하고 광열비와 잡비의 비중도 약간 上位에 있으며 피복비는 같은 비중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잡비의 上廻가 높은 앵겔계수를 동반하므로 생활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단 近年에 點증하는 앵겔계수와 잡비의 증가율이 서울 보다 크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의 전망은 기대할 만하다.

4. 農家の 飮食物 消費構造

1964년 부터 1968년 까지 최근 5년간의 농가의 음식물비의 내용을 보면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연 높아서 평균 78.4%에 달하며 비주식물비는 평균 21.6%로서 그 중 부식물비는 평균 13.3%의 저율인데다 농가의 부식물비의 대부분이 농가 내부에서 조달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영양함소 부식물에 대한 지출은 대폭 줄어든 비중이 된다. (표 11)에서 연도별로 관찰하면 주식물비의 구성비는 매년 조금씩 減증하는 경향히 뚜렷하고 부식물비는 반대로 點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미료가 음식물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6%의 低率을 나타내며 매년 減증하고 있고 기호품은 평균 3.2%의 비중을 갖고 별로 변화가 없으며 외식은 평균 3.5%로서 낮아지고 있다. 주식물비 중 미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음식물비의 50.1%에 달하며 백류의 20.9%와

農家 家計의 消費構造 分析

<표-11>

연도별 음식물비의 구성내용 전국 농가(호당평균) 1964~1968

연도별	음 식 물 비 (100)																
	총액	주 식 물 비							부 식 물 비					조미료	기호품	외식	
		소계	미곡	백류	잡곡	두류	서류	기타	소계	채소류	육류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원	%	%	%	%	%	%	%	%	%	%	%	%	%	%	%	%
1964	59,930	80.0	51.1	20.6	3.4	1.2	3.7	0.0	11.8	1.9	1.2	0.0	2.6	6.1	1.3	2.9	4.0
1965	53,370	78.4	49.4	20.8	2.6	1.1	4.4	0.1	12.9	2.1	1.3	0.1	3.3	6.1	1.4	3.4	3.9
1966	55,140	78.3	49.3	21.8	2.2	1.0	4.0	0.0	13.5	2.4	1.6	0.1	3.5	5.9	1.5	3.2	3.5
1967	62,620	77.8	49.2	21.4	2.1	1.1	4.0	0.0	14.4	2.2	1.4	0.2	3.5	7.1	1.5	3.4	2.9
1968	67,820	77.3	51.3	20.1	1.7	0.9	3.2	0.1	14.1	3.5	1.5	0.2	3.6	5.3	2.3	3.3	3.0
평균		78.4	50.1	20.9	2.4	1.1	3.9	0.0	13.3	2.4	1.4	0.1	3.3	6.1	1.6	3.2	3.5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1968

<표-12>

연도별 주식물비에 대한 구성비

단위: %

연도별	주 식 물 비							
	계	미곡	백류	잡곡	두류	서류	기타	
1964	100	64.0	25.7	4.2	1.4	4.6	0.1	
1965	100	63.0	26.6	3.3	1.4	5.6	0.1	
1966	100	63.0	27.8	2.8	1.3	5.1	0.0	
1967	100	63.2	27.5	2.7	1.4	5.2	0.0	
1968	100	66.4	26.0	2.2	1.1	4.2	0.1	
평균	100	63.9	26.7	3.0	1.3	5.0	0.1	

합하여 71%라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농가 食生活의 불균형을 짐작케 한다. (표 12)는 주식물비에 대한 구성비를 나타내는 바 5년간 평균 미곡이 63.9%, 백류가 26.7%로 절대적이며 다음이 서류, 잡곡, 두류, 기타의 순으로 구성되고 있다. 미곡의 비율은 전체 음식물비에 대하여는 매년 점감하는 경향이었으나 주식물비중 차지하는 위치는 확고하여 변화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된 느낌이다. 근소한 변화는 그 해의 미곡 가격에 영향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백류의 비중 역시 1966년까지는 증가되었다 다시 감소하였지만 그 차이는 매우 작아

<표-13>

연도별 부식물비에 대한 구성비

단위: %

연도별	부 식 물 비						
	계	채소류	육류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1964	100	16.0	10.0	1.0	21.5	51.5	
1965	100	16.4	10.3	1.0	25.6	46.7	
1966	100	17.6	11.7	1.1	26.1	43.5	
1967	100	15.2	10.1	1.3	24.0	49.4	
1968	100	24.9	10.6	1.5	25.3	37.7	
평균	100	18.0	10.5	1.2	24.5	45.8	

서 폭가로 인한 변화로 思料된다. 잡곡의 비중은 매년 점감되고 있음이 뚜렷하다. 두류, 서류 기타는 약간의 불규칙한 변화를 보이며 대체로 일정하다. 부식물비에 대한 구성비를 (표 13)에서 관찰하면 5년간 평균, 가공식품이 45.8%로 首位를 占하고 다음이 수산물로 24.5%, 채소류가 18.0%, 육류가 20.5%, 축산물이 1.2%를 구성하고 있다. 연도별로 볼 때 가공식품의 비중은 1967년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매년 점감되어서 64년도에 51.5%에서 1968년에는 37.7%로 대폭 감소됐고, 다른 품목들은 모두 196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채소류의 비중이 낮은 것은 농가의 자체생산으로 가격이 低廉한데 기인한 것으로 채소의 소비가 적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농가에서 가장 부족되고 있는 동물성 영양소의 공급원인 육류, 축산물, 수산물의 비율이 점증되고 있음은 다행한 현상이나 그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음식물비에 대한 구성비는 각각 1.4%, 3.3%, 6.1%에 불과하여 앞으로 개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 생각한다. 음식물비의 내용을 경지규

<표-14> 경지 규모별 음식물비의 구성내용 전국농가(호당평균)

경지규모별	음 식 물 비 (100)																
	총 액	주 식 물 비							부 식 물 비					조미료	기호품	외식	
		소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기타	소계	채소류	육류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정보	원	%	%	%	%	%	%	%	%	%	%	%	%	%	%	%	%
I 0.5미만	41,424	78.1	45.2	25.0	2.9	0.5	4.4	0.4	13.1	2.5	1.2	0.2	3.8	5.4	1.9	3.1	3.8
II 0.5~1.0	48,296	79.3	49.1	22.8	2.1	0.9	4.3	0.3	12.6	2.5	1.2	0.1	3.0	5.8	1.5	3.0	3.6
III 1.0~1.5	59,606	78.4	51.3	20.2	2.2	1.2	3.5	0.3	13.5	2.4	1.4	0.2	3.2	6.3	1.6	3.3	3.2
IV 1.5~2.0	68,538	78.2	53.8	17.1	2.9	1.2	3.1	0.6	13.8	2.4	1.6	0.1	3.2	6.5	1.4	3.5	3.1
V 2.0 이상	79,580	75.5	55.2	13.6	2.2	1.6	2.9	0.2	15.6	2.4	2.1	0.3	3.7	7.1	1.8	4.0	3.1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1968

* 총액은 1965년을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의 5년 평균치임.

모별로 다시 관찰하면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물비의 비중은 계층간에 차이가 별로 없이 일정한데 반하여 미곡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지규모가 클수록 높아지고 맥류는 이와 반대로 낮아지고 있음이 현저하다. 부식물비도 II계층이 가장 낮은 비율을 占하다 大農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조미료는 계층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기호품은 경지규모가 커질수록 비중이 커지고 외식이 占하는 비율은 오히려 경지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주식물비에 대한 구성비를 계층별로 보면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계층에서 미곡이 首位를 占하고 경지규모에 비례하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음이 맥류로서 미곡과는 역상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류도 맥류와 같은 경향으로 I계층이 가장 큰 비율을 갖고 있으며 잡곡은 계층간의 격차가 일정치 않으며 두류는 경지규모가 작은 영세층일 수록 비중이 낮고 기타는 일정하다. 부식물비의 내용은 계층별로 볼 때 (표 16)에서와 같이 가공식품이 각 계층에서 수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경지 규모가 커질수록 V계층에선 오히려 낮은 비율로 I계층 다음이지만 이는 V계층의 부식물비가 다른

農家 家計의 消費構造 分析

<표 15> 경지규모별 주식물비에 대한 구성비(호당평균) 단위: %

경지 규모 별	계	미 곡	맥 류	잡 곡	두 류	서 류	기 타
I	100	57.8	32.0	3.7	0.7	5.7	0.1
II	100	61.8	28.8	2.7	1.2	5.4	0.1
III	100	65.4	25.8	2.8	1.5	4.4	0.1
IV	100	68.8	21.8	3.8	1.6	3.9	0.1
V	100	73.1	18.1	2.8	2.1	3.9	0.0

계층과 큰 격차를 보여 이에 대한 상대적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이며 전체 음식물비에 대한 비율로 보면 역시 V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해산물은 계층간에 격차가 명확치 않고 채소류와 육류는 역상관관계로서 前者는 대농으로 갈수록 낮은 비율인 반면 後者は 영세층으로 갈수록 低率로 나타나고 있다. 축산물은 대체로 경지

<표 16> 경지규모별 부식물비에 대한 구성비(호당평균) 단위: %

경지 규모 별	계	채 소 류	육 류	축 산 물	해 산 물	가 공 식 품
I	100	19.5	9.2	1.3	28.6	41.4
II	100	19.6	9.5	0.9	23.8	46.2
III	100	17.8	10.5	1.1	23.8	46.8
IV	100	17.1	11.5	1.3	22.9	47.2
V	100	15.0	13.8	1.9	23.5	45.8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경지규모의 현저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주식물비의 비중에는 계층간의 차이가 전혀 없을 정도이며 V계층에서만 감소 현상이 뚜렷이 보여 소비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看取할 수 있다. 이는 부식물비에서도 나타나 다른 계층간의 격차보다 V계층에서 부식물비의 비중의 증가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내용별로 계층 즉 소득수준에 따라 영향이 큰 것은 주식에 있어 미곡과 맥류의 비율이며 부식에서는 육류와 가공식품에서 예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전국농가와 경지규모별 농가의 음식물비의 구성내용을 전도시 전가구와 서울 전가구의 것과 비교하여 보면 (표 17)과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표 17> 연도별 식료품비의 구성내용 전도시 전가구(월평균) 1964~1968

연 도 별	식 료 품 비 (100)											
	총 액	곡물	육어개	유란	채 소	및 초	과실	조미료	가공 식품	과 자 및 청량음료	알콜 음료	의식
	원	%	%	%	%	%	%	%	%	%	%	%
1964	5,130	65.7	10.7	1.4	11.9	—	5.8	1.4	1.0	0.7	1.4	
1965	5,550	60.0	12.6	1.5	13.5	—	7.2	2.0	1.1	0.7	1.4	
1966	6,580	54.7	14.0	2.0	15.8	—	7.6	2.1	1.5	0.9	1.4	
1967	9,180	44.8	16.4	2.2	19.8	—	9.7	2.3	1.9	1.1	1.8	
1968	9,840	44.7	18.9	2.7	15.6	3.6	6.8	2.4	2.3	1.2	1.8	

자료: 경제기획원: 도시가계보고서 1968

점은 도시와 농가의 음식물비 내용의 분류가 相異해서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도시와 농가의 가계조사기관이 서로 다른데서 오는 불가피한 사정이며 내용으로 보아 서로 비교하는데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 우선 전도시 전가구와 서울 전가구의 음

<표 18> 연도별 식료품비의 구성내용 서울 전가구(월평균) 1964~1968

연도별	식료품비 (100)												
	총액	곡물	육어개	유란	채소	및 해초	과실	조미료	가공식품	과자	및 음료	알콜음료	의식
	원	%	%	%	%	%	%	%	%	%	%	%	%
1964	5,800	60.2	12.2	1.7	14.0	—	6.4	1.9	1.4	0.7	—	—	1.5
1965	6,250	54.1	14.4	2.1	15.8	—	7.5	2.6	1.4	0.5	—	—	1.6
1966	7,190	49.5	15.3	2.5	18.2	—	7.8	2.7	1.7	0.8	—	—	1.5
1967	10,290	40.0	17.1	2.5	23.1	—	9.9	2.4	2.0	1.0	—	—	2.0
1968	10,890	37.9	21.6	3.2	17.4	4.0	4.3	2.7	2.8	1.3	—	—	1.8

자료: 경제기획원; 도시가계보고서 1968.

식물비 내용을 보면 주식비에 해당하는 곡물의 비중은 5년간 평균 전도시가 54.0%, 서울이 48.3%로서 이는 전국농가의 78.4% 보다 훨씬 낮은 것이며 경지규모별 각 계층은 이보다 고율의 주식비를 시현한 바이다. 그 반면에 육어개, 유란, 채소 및 해초, 가공식품을 합한 부식물비의 비중은 1964년에 가장 낮아서 전도시가 25.4%, 서울이 29.8%를 나타내고 1968년엔 전도시가 39.6%, 서울이 44.9%에 달하여 전국농가와 경지 규모별 어느 계층도 이 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그 구조상의 격차는 2배 이상이 되고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심한 격차와 소비구조의 相異를 더욱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더우기 전국농가에서는 5년간 음식물 소비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 반하여 전도시와 서울은 곡물의 비율이 매년 현저히 감소되어 전도시는 1964년의 65.7%에서 1968년에는 44.7%로 서울은 60.2%에서 37.9%로 대폭 축소되고 있다. 반면에 부식물비는 매년 점증되며 그 중에서도 동물성단백질원이 되는 육어개, 유란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어 농가와 도시의 식생활 수준의 變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농가에서는 건강과 체위 향상에 절대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원의 섭취가 너무 低調하며 이는 소득에 기인한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즉 前章의 가계비 구조분석과 도시와의 비교에서 농가의 경제상장과 지출구조의 향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示顯한 바이나 음식물비의 소비 내용에는 향상이 따르지 못한 것은 영양지식 내지 인식부족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적고 구태의연한 식습관에 의해 식생활이 운영되고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다. 이로써 농가는 아직도 다각적인 제공이 필요하고 가계지출중 가장 큰 비율을 占하며 근본적으로 개인 내지 국가번영의 기본이 되는 건강과 내일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음식물비의 합리적 운영과 이에 따른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IV. 結 論

1. 전국농가 평균의 家計支出은 지난 9년간 금액으로는 漸增하였는데 이는 농가에서 구입하는 家計用品의 價格昂騰에 기인하고 보면 농가의 실질적인 生活向上에 支出된 增加는 매우 적었다.

2. 結論의으로 본 家計支出의 增減은 物價의 變動에 크게 영향을 받으나 실질적으로는 可處分所得의 增減에 左右되고 있다.

3. 農家の 家計費 중에서 飲食物費가 占하는 比率은 점차로 감소되는 경향에 있으며 경지 규모가 큰 농가에 있어서의 英鎊係數는 작은 규모 보다 훨씬 낮고 또한 도시가구는 농가보다 훨씬 낮다.

4. 飲食物費의 比重은 전체 消費構造에 크게 影響을 주며 그 類의 食品 價格(특히 주식 중에도 미곡의 價格)과 所得水準에 따라 左右되며 後者의 影響이 더욱 지배적이다.

5. 雜費는 飲食物費와 逆相關關係에 있으며 住居費는 所得에 關係없이 대체로 일정한 비율을 占하고 被服費와 光熱費는 작은 變異를 갖고 後者는 所得에 比例하여 遞增하는 경향이고 後者는 反比例 내지 일정한 경향이다.

6. 飲食物 消費構造에 있어서 生活水準이 높을 수록 主食費의 比重은 遞減하고 반대로 副食費중 肉類 및 가공식품의 比重은 遞增하는 경향이나 主食중 米穀이 占하는 比重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이다. 그러나 飲食物의 消費構造에는 主婦의 營養에 관한 知識, 生活習慣, 消費態度, 등의 諸要因이 크게 作用하고 있음을 도시와 농가의 소비구조 비교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의 國民의 所得增大로 도시 및 농촌의 家計費의 內容이 다같이 高化되고 있으며 보다 많은 所得은 家計費 중에서도 飲食物費 특히 主食이 占하는 比率을 도시보다 농가에 있어서 더욱 減少시킬 것 같다.

▶ 參考文獻

1. 李仁喜 著, 家庭經營과 管理, 修學社 1968
2. 崔慶天 著, 家庭經濟, 進明文化社 1965
3. M.K.Bennett, The World's Food, Happer & Brothers Publishers N. Y. 1954
4.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60~1969
5. 經濟企劃院 도시가계 보고서 1968
6. 經濟企劃院 韓國統計月報 1966.5月
7.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2, 1967
8. 農林部, 農林統計年報 1968

9. 농림부, 농가 경제조사 및 농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보고 1969
10. 농림부, 農業經濟年報 1962, 64, 65
11. 農協中央會, 農業年鑑 1960~1969.
12. 經濟人協會, 韓國經濟年鑑 1968, 1969
13. 日本家政學會, 家政學雜誌 Vol. 20 No.6

ABSTRACT

Farm households consumption pattern from 1960 to 1968 was analyzed as follows.

First, the influence of the price on the consumption pattern was observed by year for 9 years.

Second, the influence of farm households disposal income on the consumption pattern was analyzed by year for whole household and by size of the arable land.

Third,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farm families consumption pattern was attempted to be found out compared with the pattern of all families of Seoul.

Forth, the pattern of food expenditure which has the largest proportion in the living expenditure was analyzed.

Following results and conclusions are obtained from the above analysis.

1. The average nominal increase rate of all farm households has been increased gradually for 9 years, mostly due to the rise in household goods prices paid by farmers.
2. The living expenditure varies with the price and the disposal income. The influence of the latter is greater than that of the former.
3. The Engel's Coefficient of farmers, the average of which was 54.9%, recently tends to decrease gradually. The larger is the size of arable land, the lower is the Coefficient of farm households. But the Coefficient of farm households is higher than that of city families.
4. In general the proportion of food expenditur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consumption pattern. The average percentage of miscellaneous expenditure is 23.9% and it is next to food expendi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going reversely. Housing expenditure has usually the constant proportion. But the difference of the proportion between farm households (4.0%) and city families (17.1%) is considerable. Clothing expenditure and fuel and light expenditure have small variations. The former tends to increase with the income, and the

latter tends to decrease with it or is constant.

5. Considering the food expenditure pattern, the average percentage (78.4%) of staple food of farm household is remarkably high compared with Seoul (48.3%) and other cities (54.0%). The decrease of the percentage of staple food expenditure in farm households is not so much as cities.
6. The proportion of the staple food expenditure of Farm families don't have so much differences by the size of arable land, But the rice proportion of staple foods has the tendency to increase with the income level. Subsidiary food expenditure doesn't increase by year and by size of the land, while the consumption of meat and manufactured foods tends to increase with size of the land. But even big farm households don't reach to the level of cities in consumption of them.
7. Food consumption pattern may be influenced by the factors such as the knowledge of wife about nutrition, customs, consumption habits, and so on. The difference between farm households and city famili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 is inferred from the above factors.

Presently, the increasing income of the people promote the consumption of all items of living expenditure both in cities and farm households. But the Engel's Coefficient and the proportion of the staple food expenditure is expected to decrease in farm households more than in cities.